

료칸 료운카쿠

료운카쿠는 마쓰노야마 온천마을에 위치한 역사 깊은 료칸입니다. 1938년에 지어진 목조 3층 본관은 2005년에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 이 료칸은 당시 설국의 건축양식이 훌륭히 보존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3번의 대지진을 견디고 매년 내리는 폭설의 무게를 이겨낸 점을 고려하면 이 건물이 지닌 긴 역사는 특히 더 감탄할 만합니다.

현재도 운영 중인 이 료칸에는 많은 독특한 건축적 특징이 있습니다. 건설 당시 주인은 숙련된 목수들에게 내장공사를 맡겼는데, 각 목수가 14개 객실 중 한 곳씩 맡아 자유롭게 설계했습니다. 이들은 서로의 기술을 겨루었는데, 그 결과 정교하게 조각된 난간, 구미키라고 하는 섬세한 목공예 기법으로 만들어진 미단이문, 바둑판이나 장기관 모양으로 꾸며진 독특한 천장이 만들어졌습니다. 메인 로비에는 어두운 색의 나무바닥에 길조를 상징하는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. '후시카쿠시'라고 하는 이 섬세한 조각은 옹이나 흙 등 나무판의 결점을 감추어주었습니다.

20세기 초 건축의 레트로한 매력과 장인정신이 담긴 뛰어난 장식 덕분에 '료운카쿠'는 독특한 설국 체험을 제공하는 특별한 장소로 손꼽힙니다.